

# 몸 풀렸네, 姜

컵스전 안타·타점·호수비... 팀 4-3 승 이끌어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메이저리그 입성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안타와 타점을 올렸다.

강정호는 2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 파크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 메이저리그 홈경기에서 8번타자·유격수로 선발출전해 2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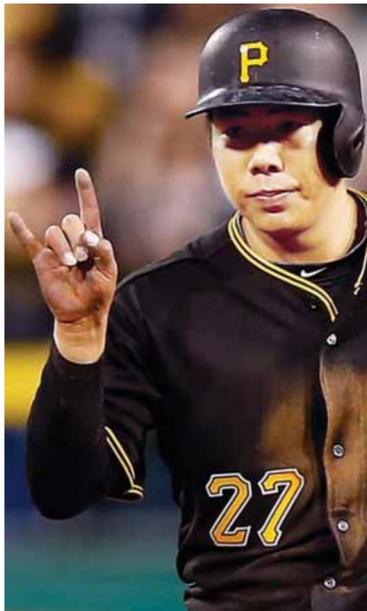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3경기 연속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강정호는 첫 타석부터 자신감 있게 배트를 휘둘렀다. 1-0으로 앞선 2회말 무사 2·3루에 등장한 강정호는 컵스 오른쪽 선발 제이슨 하벨의 시속 130km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좌익수 희생플라이를 쳤다. 3루주자 프란

시스코 세르벨리가 홈을 밟기에 충분한 큰 타구였다.

전날 3타점 2루타를 쳐낸 강정호는 이 희생플라이로 2경기 연속 타점을 기록했다. 강정호의 시즌 4번째 타점이다.

4회 선두타자로 나서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난 강정호는 세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생산했다. 6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오른쪽 불펜 곤살레스 저먼과 맞선 강정호는 시속 151km 직구를 정확하게 받아쳤다. 타구는 빠르게 유격수 키를 넘어 좌익수 앞에 떨어졌다. 강정호가 연속 경기 안타를 쳐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팀은 4-3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 안풀리네, 秋

애리조나전 2경기 연속 침묵... 팀 패 못막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의 방망이가 두 경기 연속 침묵했다.

추신수는 2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인터리그 방문 경기에서 5번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장, 2타수 무안타 1득점을 기록하고 몸에맞는공과 볼넷으로만 두 차례 출루했다.

전날 애리조나와 2연전 첫 경기에서 4타수 무안타로 돌아선 추신수는 2경기 연속 안타를 지지 못했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135에서 0.128(39타수 5안타)로 떨어졌다.

텍사스는 네 차례나 병살타를 기록하며 애리조나에 5-8로 역전패했

다. 추신수는 1회초 2사 1,2루에서 첫 타석을 맞아 애리조나 선발 아치 브래들리의 투구에 맞고 출루, 만루로 기회를 이어갔다.

그러자 로빈슨 차리노스가 볼넷을 골라 텍사스는 밀어내기로 선취점을 올렸다.

텍사스가 1-2로 역전당한 뒤 3회초 2사 1루에서 다시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는 유격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점수 차가 1-5로 벌어진 6회에는 무사 1루에서 유격수 앞 병살타를 쳐 반격 기회를 무산시켰다.

추신수는 2-8로 뒤진 9회 무사 주자없는 상황에서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 앤드루 사핀에게서 볼넷을 골랐다. /연합뉴스

# KIA 마운드 퍼즐 맞추기 이번엔 완성?



문경찬



한승혁



서재웅

두산과 주말 3연전... 문경찬, 선발 마지막 시험대  
임기준 부진은 서재웅, 불펜 공백은 한승혁 카드로  
김병현·임준혁 복귀준비 순조... 한기주 첫 퓨처스 등판



주말 잠실에서 '호랑이 군단'의 마운드 조각이 맞춰진다.

KIA 타이거즈가 24일 잠실로 올라가 두산 베어스와 주말 3연전을 치른다. KIA는 올 시즌 처음 벌이는 두산과의 경기에서 승리와 퍼즐 맞추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게 된다.

확고한 선발 카드로 양현종-허버스틴슨은 홈에서 열린 롯데와의 주중 3연전에서 이미 사용했다. 이번 두산 3연전에서는 남은 두 자리를 놓고 다양한 계산이 이뤄지게 된다. 시즌 전 구상했던 임기준-임준혁 카드가 각각 부진과 부상으로 빠지면서 시작된 고민이 아직 진행 중이다.

일단 임준혁 자리에 들어선 루키 문경찬이 다시 한번 선발 기회를 얻는다. 앞선 등판에서 장타에 주저앉기는 했지만 코칭스태프는 문경찬의 거침없는 투구와 잠재성에 높은 점수를 줬다. 하지만 가능성만을 보고 가기에는 남은 시즌이 길다. 문경찬의 등판 내용에 따라 앞으로 마운드 구성에 많은 변화가 일게 된다. 이번에도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 대체 자원의 투입이 고려될 전망이다. 김병현이 2군 경기를 소화하고 있고 임준혁도 등판 준비를 하고 있다. 1군에서 기

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는 홍건희도 선발로서 준비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임기준의 부진은 서재웅 카드로 막는다. 임기준은 앞선 선발 등판에서 제구 난조를 보이며 2군에서 재정비에 들어간 상태. 2군 첫 등판에서도 아쉬움을 남기면서 복귀 시간은 미뤄졌다. 서재웅은 부상으로 캠프 완주는 하지 못했지만 2군에서 구위를 끌어올렸고 무엇보다 경험이라는 큰 무기를 가지고 있다.

주말 3연전 선발로 낙점해두었던 한승혁은 일단 불펜 쪽에서 힘을 더하도록 방침이다. 한승혁이 불펜으로 투입되면서 일요일 선발 자리는 안갯속에 가려져 있다. 로테이션상으로는 양현종의 순서지만 앞선 롯데와의 경기에서 7이닝을 막는 등 팀에서 가장 많은 32.1이닝을 소화한 만큼 무리시키지 않겠다는 게 코칭스태프의 생각이다. 주말 두 경기 결과에 따라 선발진은 물론 불펜까지 마운드의 전체적인 자리 이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한편 한기주는 23일 첫 정식경기에서 나서 5이닝 1실점의 호투를 남겼다. 한기주는 함평 챌린저스필드에서 열린 화성 히어로즈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 5이닝 4피안타 4볼넷 4탈삼진 2실점 1자책을 기록했다. 총 84개의 공을 던졌고 직구 최고 구속은 141km를 찍었다. /김여울기자 wool@

# 김호령, 첫타석·첫안타 호령... "아직도 정신 없어요"

## 덕아웃 특·특

▲"코치님 공 좀 던져주세요." = 23일 훈련 시작에 앞서 홍세안 타격 코치가 김민호 수비 코치를 찾았다. 특타 배팅볼 투수가 나서주라는 게 그 이유였다. 극심한 부진에 빠진 나지완과 이범호는 며칠째 특타를 하고 있다. 전날에는 홍 코치의 부탁으로 조계현 수석코치가 배팅볼 투수가 되어 두 선수 기살리기에 나섰다. 홍 코치는 "살아날 때까지 코치님들에게 공을 던져주시라고 할 생각이다. 안 되면 감독님에게도 부탁하겠다"며 두 선수의 부활을 빌었다.

▲"이벤트 하는 것처럼 재미있었어요." = 문경찬의 신인다운 유쾌한 대답이었다. 투수 문경찬은 22일 헬멧을 쓰고 그라운드에 올랐다. 투수가 아니라 대주자로 기용이 된 것이다. KIA는 2-7로 뒤진 8회 3점을 뺏아내며 2점 차로 추격을 한 뒤 9회 필의 2루타로 1사 2루의 기회를 만들었다. 나지완이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났지만 최희섭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6-7. 유일하게

남은 야수 박기남이 대타로 준비되면서 벤치는 투수 쪽에서 최희섭의 대주자를 몰색했다. 투수중 가장 빠른 발을 가진 한승혁이 9회 등판했던 상황이라 문경찬이 대주자로 낙점됐다. 2사 만루에서 경기가 끝나면서 아쉽게 홈을 밟지는 못했지만 문경찬은 "고등학교 1학년 이후 처음으로 주자가 된 것 같은데 이벤트 하는 것처럼 재미있었다. 긴장은 되지 않았는데 조금 정신은 없었다. 코치님께서 견제 조심하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대주자가 된 소감을 말했다.

▲"우왕좌왕하고 있네." = 투수 서재웅에게는 아직 낯선 1군이다. 서재웅은 주말 두산전 선발을 앞두고 1군 선수단에 합류해 훈련을 하고 있다. 아직 1군과 새로 바뀐 시스템이 익숙지 않은 서재웅이었다. 이를 연습 훈련 시작 전 서재웅을 찾는 소리가 들렸다. 투수진 미팅이 전력분석실에서 진행되는 걸 몰랐던 서재웅이 나홀로 일찍 그라운드에 나와 운동을 시작했던 것이다.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서재웅은 "아직 적응이 안됐나 봐.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급히 미팅장소로 향

했다. ▲"아직도 정신이 없어요." = 신인 김호령에게는 정신없는 이틀이었다. 외야수 김호령은 22일 김주찬을 대신해 처음 1군 엔트리에 등록이 됐다. 그리고 등록된 첫날 7회 2사 2루에서 타석에 섰고, 프로 첫 타석에서 안타를 때려냈다. 김호령은 "어떻게 쳤는지도 모르겠다. 아직도 정신이 없다. 경기가 끝나고 축하 인사를 정말 많이 받았다"고 웃었다. 김호령은 23일에는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출전했다.

▲"매일이 인생경기라고 생각합니다." = 22일 2타점 적시타를 때려내며 불꽃 추격의 중심이 됐던 포수 이흥구. 이흥구는 "김중국 코치님께서 오늘이 너의 인생경기라고 생각하고 타격을 하라고 하였고, 자신있게 쳤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예전에는 소극적이었는데 요즘은 과감하게 하려고 한다. 일단 쳐야 안타가 되든지 아웃이 되든지 하는 것이다. 매일이 인생경기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이범호, 통산 33번째 1500경기 출장



KIA 내야수 이범호가 23일 광주 롯데전에 앞서 1500경기 출장 달성 시상식을 가졌다. 이범호는 지난 10일 대구 삼성전에서 5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장하면서 프로 통산 33번째 1500경기 출장을 달성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KIA 구단은 격려금과 상패, 축하 꽃다발을 전달했고 KBO(한국야구위원회)도 총재를 대신해 유남호 경기운영위원이 기념패와 축하 꽃다발을 전달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